

디지털방송 표준정책 논의와 방향

차 양 신
정보통신부 방송위성과장

1. 머리말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컴퓨터기술에 이어 통신부문과 접목되면서 인터넷의 폭발적 확산 및 지식정보이용의 획기적 증대 등을 통해 인류사회는 고도지식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방송부문 역시 빠르게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을 촉진하고 있다. 방송망이 21세기 고도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디지털화 된 방송망은 누구나 손쉽게 값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e-Commerce도 가능하게 하여 PC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종합 정보매체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정보통신부에서는 '95년에 위성방송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확정하는데 이어서 '96년에 디지털위성방송 시험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97년에는 디지털지상파TV 방송방식을 미국방식(ATSC)으로 채택하고 그동안 기술개발 및 실험방송을 거쳐 금년 8월말부터 SBS가, 9월3일부터 KBS, MBC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지상파TV의 본방송이 개시될 계획이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몇몇 시민단체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에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 지상파TV 방송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미국방식과 유럽방식간의 비교 필드테스트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문제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부정책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방송방식 관련쟁점

먼저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일부단체에서 정부가 정한 디지털 방송방식(ATSC)과 관련하여 문제점 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서는 각 기술방식의 장단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97년 방송방식선정 당시에 각 방식의 장·단점에 관한 논란과 비교테스트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둘러서 방식을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90년대 후반기부터 세계 각국은 지상파TV를 비롯한 방송망을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자국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망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시청자 복지향상,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의 육성 등을 위하여 방송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는 국민의 방송편의 제고 및 지상파 방송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정정보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관련 신산업 및 고용창출 등 산업적 효과 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 컬러TV 도입이 일본('80), 대만('89) 등 경쟁국에 비해 늦어 이를 따라잡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컬러TV 방송실시 이후 TV수상기 등 관련제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73%, 5년간 연 평균 생산율은 86%가 증가하였다. 디지털방송이 실시되면 이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방송의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97년에 미국, 영국 등 선진외국의 디지털방송 추진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상파방송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방송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97. 3월에 방송사,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6개월간 각 방식에 대해 장단점을 세밀히 비교·검토하고 공청회('97.8)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97년 9월 기술·경제·서비스 등 종합적 측면에서 미국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정보통신부

에 건의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이 건의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11월에 디지털 방송방식으로 미국방식(ATSC)을 선정하였다.

협의회의 기술검토 과정에서 각 방식이 이론상 상대적인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송방식은 유럽 방식(COFDM)을 선호하는 전문가도 있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중국적으로 방송사를 비롯한 모든 참여 기관들이 전원 합의하여 미국방식을 선정하게 되었다. 미국방식이 유럽방식에 비해 탁월하게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중경로(multipath) 수신기능, 이동수신 기능상의 약점이 있지만 기술·경제·서비스 등 종합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또한 97년 당시에는 유럽방식은 7MHz 또는 8MHz 아날로그TV 채널 폭 환경의 SDTV 서비스용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6MHz환경에 HDTV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방식과는 객관적인 비교시험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비교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고 각 방식에 대한 외국시험 결과를 참조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전송방식(COFDM)이 6MHz대역용 modulator를 개발하여 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99년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방식선정 자체를 2~3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외국 기술도입에 의존하던 아날로그TV 시대와 달리 디지털TV 시대에 우리나라 방송산업이 통신부문과 같이 선진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보다 늦지 않는 디지털 방송도입과 이에 따른 사전 기술개발 및 실험·시험방송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97년도 방식선정은 이른 것이 아니었다. 97년에 방식을 선택한 결과, ATSC방식에 바탕을 둔 기술개발과 실험 등으로 기술력·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둘째, 미국 전송방식(8-VSB)이 다중경로(multipath) 성능이 좋지 않아 난시청을 유발하여 현업 기술인들만 시청자의 불만처리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고 난시청 해소 위해 중계기 설치에 과다 투자를 함으로써 방송사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이다.

난시청 문제는 주로 높은 건물, 산 등에 가려져서 수신전계강도가 너무 낮거나 일부 심각한 다중경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디지털TV에서도 아날로그TV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방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계기 설치와 적절한 수신설비로써 해결될 문제로서 이것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소비자연맹(NCL : National Consumer League)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방식 수신불만은 4%에 불과한 실정이고, 유럽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시청자 수신불만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올바른 디지털TV 수신을 위해 성능 좋은 옥외안테나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전송방식을 도입하면 HDTV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실내수신기능, 이동수신기능 등이 뛰어난 것처럼 알려지고 있으나 이런 기능들을 동시에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송신출력을 최대 1,500배까지 올려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본은 97년 당시 2001년에 디지털 지상파TV 본방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년 말부터 방송위성이 7개 채널을 통해 HDTV서비스를 실시할 정도로 고화질 영상프로그램 기반이 갖춰졌음에도 지상파TV의 디지털방송 도입을 2~3년 더 연기하는 것은 디지털용 채널 확보라는 표면상의 문제 외에 COFDM 기술을 변형한 일본방식(ISDB-T)의 상용화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셋째, 미국 전송방식(8-VSB)이 이동수신 성능에 결점이 있으므로 향후 방송·통신의 융합, 데이터방송의 확산과 이동통신망과의 결합 등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우려이다.

현재의 미국 전송방식표준으로는 이동수신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미국방식 표준 결정 당시 TV방송은 특성상 고정된 장소에서 고화질(HD)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며 그것도 6MHz의 좁은 채널 폭에 실현시키기 위해 이동수신 성능을 설계요건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이동수신기능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 기술개발 및 보완·개선으로 확보해 나가든지 DAB, IMT-2000 등의 서비스를 통해 상호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동수신에 강한 유럽 전송방식(COFDM)도 이동수신에 필요한 신호의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Guard Interval을 넓히는 등 데이터 전송율을 대폭 낮추어야 하므로 이동수신시에는 HDTV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동중 TV수신을 위해서는 과다한 송·중계소 투자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서 실제로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실, 경제성도 별로 없는 이동서비스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하여 지상파TV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콘텐츠(고화질 영상 프로그램 등)로써 매체간 경쟁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넷째, 97년 방식선정 당시에 미국방식과 유럽방식간 비교필드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 기술발전 등으로 상황변화가 생겼으니 비교테스트를 실시하여 본방송 시행 전에 확인·검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비교테스트 주장은 현업 기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기술을 잘 모르는 일부 시민단체까지 합세하여 이를 주장토록 하는 것은 세계 초유의 일로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면서 주위의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더욱 어렵게만 만들고 있다.

비교테스트 실시요청에 대해서 정부는 방송사, 산·학·연 전문가들과 몇 차례 공식·비공식 토론과 해외 실태 조사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 정부차원의 방식재검토나 비교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 이유는 전술한 외국 예에서 보듯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교테스트 계획을 수립·실시하는 것도 어렵지만 비교테스트를 실시해 보아도 각 방식의 장·단점만 확인하게 되고 결국 선정당시와 같이 논쟁만 불러일으켜서 추진일정만 최소 2~3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99년부터 디지털 지상파TV 실험 방송에 국비(54억원)를 지원하여 이를 통해 국가표준(ATSC)에 대한 검증·확인을 마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방송사,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들이 현재 시점에서 비교테스트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시험실시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교시험을 통해 양 방식의 성능을 검증·확인하고자 하는 당초의 순수한 동기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 등 무선국허가 및 공정한 시험실시 지원 등 시험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어떤 방송사든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이 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표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3. 방송방식문제의 본질

OFDM방식이든 VSB방식이든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기술이론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이 주장될 수 있고 OFDM방식은 시기적으로 나중에 개발된 개념이므로 연구발전 가능성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것도 사실인 반면에, 그 만큼 검증·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많다. 앞으로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를 감안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보완·개선·발전시키면 대부분의 단점은 치유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방송방식은 그 나라의 방송정책목표, 시간·공간적 방송환경 및 방송사의 수익모델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미국방식(ATSC)은 6MHz 채널 폭 환경에서 고화질 HDTV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안정적으로 저렴한 전환 투자 비용으로 제공하되, 아날로그 채널과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 방식은 또한 미국 ATTC (Advanced Television Test Center) 주도로 개발지, 산악지역 및 대도시 고층빌딩 등 미국의 다양한 지형·지역을 대상으로 수천 회의 필드테스트를 거쳐 검증된 것이다.

다만, 이동수신 성능보장보다는 낮은 출력에서 데이터 전송용량의 최대화를 목표로 설계했기 때문에 이동수신 기능이 좋은 2-VSB, 4-VSB 등은 제쳐두고 8-VSB를 단일 표준으로 결정한 것이다.(이에 비해 유럽 방식은 2k, 8k 모드 및 1/4, 1/8, 1/16, 1/32 등 Guard Interval 설정 등의 다양한 파라미터 조합으로 사실상 조금씩 다른 수많은 규격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설계·개발 요건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4. 표준방식문제 제기방법

정부정책은 그 결정·집행과정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비판의 당연한 결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개선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불행히도 기술정책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 때문에 비판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문기술인들이 국민의 여론을 선도 또는 대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정책에 관련된 전문기술적 논의에는 도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7월부터 방송기술인연합회가 국내 디지털지상파TV방송 표준(ATSC)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식의 재검토와 이를 위해 우선 미국방식과 유럽방식간의 비교시험을 요구할 때만해도 현업 운용기술인의 순수한 요청으로 보였다.

정부도 유럽방식이든 미국방식이든 세계적으로 디지털지상파TV방송은 도입 초기단계로서 향후 운용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환경에 맞게 개선·정착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련 논의가 전개될수록 그 성격이 객관적·실증적 근거에 바탕을 둔 순수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다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정치적·노사쟁의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방송기술인연합회가 스스로 국가방송표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과 비교시험 주장의 타당성을 믿고 있다면, 기술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단체나 국민을 대상으로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방송관련 학계,

연구계, 산업계, 특히 방송사를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관련기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다수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첫째, 주위의 많은 기술전문가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점은 기술에 깊은 식견이 없는 일부 시민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에 의하면 유럽전송방식(COFDM)이 도입되면 다중경로 성능이 우수하여 난시청 문제가 해소되고 심지어 옥외안테나도 필요 없게 되어 도시 미관에도 좋다는 것인데, 방송방식의 결정이 기술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방송방식 재검토 및 비교테스트 요구 운동에 동참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난시청문제는 유럽전송방식이 도입된다고 해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안테나 설치문제 또한 유럽방식의 디지털방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수신요령 안내에서 옥외안테나(roof-top antenna)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증적 근거가 희박한 주장은 일반국민을 오도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

● 유럽방식 디지털TV 실제수신 예 ●

- 영국에서 디지털TV 시청을 위해 옥외안테나를 설치해야 하고 안테나가 낡았거나 상태가 나쁘면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은 <http://www.dtg.org.uk/consumer>를 참조
- 유럽전송방식(COFDM)은 Impulse Noise에 약하여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겠지만 이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높은 옥외안테나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http://www.deja.com>) (영국 ONdigital 방송사의 한 가입자는 20m 떨어진 옆집에서 Hoover 낙엽수거기를 작동시키는 45분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함)

도록 내버려둠으로써 운동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예 : 유럽방식TV수상기는 구입하여 집에서 포장을 풀어 플러그만 꽂으면 TV시청이 가능하다는 등)

둘째, 국내의 시험·조사 결과자료를 인용할 때 과학적·객관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주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31일 KBS, MBC, SBS 등의 방송기술인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KBS는 자사 주관으로 실시한 국내

● 국내 실험방송 결과(수신율 부분) ●

- 공정한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안테나와 디지털 안테나의 높이와 위치가 동일한 SBS방송의 측정결과를 참고하여야 함(다음 표의 음영부분 숫자가 공정한 비교자료임)
 - * KBS, MBC의 디지털 안테나는 시험용 철탑에 아날로그 안테나와 SBS 디지털 안테나 보다 30~40m 이상 낮게 설치되고 위치도 불리함
-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간의 비교수신실험 결과(KBS 발표)
 - 실외수신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균 70.3%로 아날로그 63.0%보다 높으며,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함

구 분	디지털TV			아날로그TV
	MBC	KBS	SBS	SBS
전 체 (175곳)	64.6%	60.0%	70.3%	63.0%
도심지 (80곳)	62.5%	52.5%	62.5%	63.4%

- 실내수신의 경우 27.8%로 아날로그 22.2%보다 높음

구 분	KBS		SBS	
	디지털TV	아날로그TV	디지털TV	아날로그TV
실내수신율 (18곳)	11.1%	16.7%	27.8%	22.2%

* 실내수신율이 낮은 것은 건물을 통과하면서 수신전계강도가 threshold 이하로 낮아진 지점도 시험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 시험조건에 따라 다른 외국시험결과 예 ●

○ 미국방식이 열등하다고 주장되는 브라질 시험의 수신성공률 결과

	2차 (127곳)	3차 (27곳)	4차 (27곳)
미 국 방 식	79.5%	59.3%	55.6%
유 럽 방 식	73.3%	40.7%	70.4%

※ ()은 측정 site 개수이며, 4차 시험결과를 근거로 유럽방식의 우월을 주장

○ 미국의 필드테스트 결과 수신성공률

- CBS : 미국방식 실내수신 성공률 94%(필라델피아)
 - ※ CBS는 아날로그TV화질등급 1.5이상인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ITU-R화질등급 : 5(우수), 4(양호), 3(보통), 2(불량), 1(매우불량))
- 싱글레어 : 유럽방식 100%, 미국방식 35%
 - ※ 근거리장(Near-field)내의 31개 곳에서 측정

실험방송('99.6~2000.8)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험조건 및 환경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비교·활용을 당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시험조건이 전혀 다른 수신결과들을 부적절하게 인용·비교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우려를 유발하고 증폭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의 수신시험결과를 인용할 때 유럽방식은 100%의 수신율을 보이고 있다는 식의 단순한 주장은 위험하고, 먼저 어떤 조건 및 환경에서 시험하였고 객관성·공정성이 있는 시험이었는지를 고려하여 활용해야 하며, 시험조건이 같지 않으면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유럽방식(DVB-T) 진영의 이론적 주장을 단순 반복하는 수준이 아닌 객관적·실증적 근거를 가진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 정부도 건전한 비판으로서 정부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방송사와 산·학·연 전문가가 방송기술인연합회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

러하다.

5. 향후 디지털방송정책방향

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추세를 감안하여 추진일정이 확정된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전환은 물론, 케이블TV·라디오방송 등 모든 방송매체의 디지털화를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매체별 디지털화 추진일정〉

특히, 세계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2000년 말까지는 데이터방송, 디지털 라디오방송, 디지털 케이블방송의 표준방식을 가급적 잠정표준안 형태라도 확정하여 방송사·산업계가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상파TV의 경우, 디지털방송 도입이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꾸준히 기술을 보완·개선·정착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 산하에 방송사, 산·학·연

● 매체별 디지털화 추진일정 ●

구 분	시험방송	본 방송
지상파TV	2000년 9월	2001년 하반기
위성방송	1996년	2001년 하반기
라디오방송	2002년	2003년
유선방송	2001년	2002년
데이터방송	2001년	2002년(월드컵게임이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방송기술발전담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 하반기 디지털 지상파TV의 본방송 개시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지상파TV 방식의 비교 필드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6. 맺음말

정부가 일단 97년에 결정한 디지털 지상파TV 방송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비교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정부정책 성격상 방송사를 비롯한 관련 산·학·연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일로서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표준방식을 직접 사용할 KBS, SBS, EBS 등 대부분의 방송사가 서비스, 투자, 경영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산업계, 학계 등에서도 의견을 같이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일부 현업 기술인의 고뇌와 걱정에서 보듯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에 현업 운용기술인이 새로운 기술의 습득 및 운용초기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시청자 불만의 해결 등으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차원에서 비교테스트를 통해 운용상 가장 안정된 시스템을 검증·판단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될 수 있으나, 국가표준방식은 기술·서비스·경제 등 종합적 측면에서 시간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결정된 것인 만큼 대다수 의견에 동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방송도입은 불가피하고 초기단계이므로 현업기술인들이 적극 동참하여 이를 도입·발전·정착시키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 통신부문에 이어 방송부문도 선진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방송공학회는 산·학·연의 방송기술전문가 뿐만 아니라 방송사 현업기술인도 많이 가입되어 있는 학회이므로 기술적 쟁점사항의 의견수렴 및 디지털방송기술의 연구개발·보급·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필자 소개



차 양 신

- 1977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사)
- 1982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1994 영국웨스트민스터대학 졸업(언론학석사)
- 1993 제주체신청장
- 1995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 기획총괄반장
- 1996 대통령비서실(정책기획비서실) 행정관
- 1998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장
- 1999 정보통신부 방송위성과장